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이해22

왕국의 예언자들

이스라엘의 예언

- 예언(나비, 프로페테스)의 정의

일반적 견해	'신'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일
성경의 예언	신을 대변하는 일,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건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예언은 사건이고, 현상이며, **운동**이다.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예언자의 특성

이스라엘의 예언이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지 않았는가?

의도의 다름, 예언자들의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대한 해석 아래에서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예언

하느님의 뜻을 시대의 징표 안에서 읽고, 해석하며, 신탁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관심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하느님의 뜻에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당장 이 메시지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예언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이라는 하나의 운동은 모세시대로 소급

→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뜻과 활동을 선포하고, 시대에 적용

구체적으로 예언자라는 사람들의 집단적 활동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사무엘기
예언자들의 무리, 단체가 있었음을 표현(1사무 10,5-13)

이스라엘의 예언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아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요.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 가며 수금을 뜯고 손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요.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1사무 10,5. 10)

모세, 드보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언자, 사무엘 등에게 예언자라는
➡ 표현이 사용되지만, 예언이라는 하나의 하느님의 일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단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스라엘의 예언

- 예언자 단(무리, 집단)

예언에 대한 현상은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

➡ 황홀경, 탈혼(신의 영이 덮쳐 오는 것)

신을 대하는 신적 현상

이스라엘의 예언은 계약신앙에 기반을 두고 세상의 일들에 대한 해석

예언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는 시대(판관시대 이후)부터
예언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여겨짐

예) 2열왕2,3,4; 4,38

엘리아, 엘리사는 베텔, 예리코, 길갈의 예언자 집단에 속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예언

• 성전 예언자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기도 하며, 예언활동을 펼치던 예언자들과 달리 성전에 거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음.

성전예언자(궁정 예언자)들의 임무

1. 백성들의 간청을 야훼 앞에 나아가 중재기도를 바침
2. 야훼의 대변자로서 특별한 간청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전달
3. 바쳐진 제물에 대한 판단
4. 큰 축제 때 계약에 대한 요구와 약속을 선포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언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전 예언자들의 전승은 성경 곳곳에 자리하는 것으로 연구
→ 시편, 타예언자들의 신탁 형식 등

이스라엘의 예언

- 예언과 정치

예언과 정치의 밀착성

1사무 10,5-13

예언자 집단은 필리스티아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사기를 북돋우고 하느님의 힘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을 가짐

판관	하느님의 카리스마, 영을 받아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웅
예언자	신앙의 수호자로서 계약신앙을 해석하는 정치적 임무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기병" (2열왕 2,12; 13,14)"

➡ 하느님의 영을 받아 백성들 가운데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이들

이스라엘의 예언

사제	제의를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과거의 전승을 가르치며, 점을 쳐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
예언자	야훼의 영을 받아 사건의 의미를 해설하고 구체적인 말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

사제가 직무적으로 부여 받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예언자는 하느님의
➡ 영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들로서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들

예언의 타락

정권의 시녀 ➡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한 예언자들이 실재

국가 성소에 배치된 예언자들은 민족주의의 시녀의 역할을 했으며,
후에 문서 예언자들과 같듯이 생겨남 → 거짓 예언자

예언 전승

- 신명기계 역사서

대표적인 전승군

엘리아

미카야

엘리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1열왕 22장)

아합왕 시절, 아람과의 전투에서 예언자단 400명에게 신탁을 청함

→ 여호사밧의 의문과 주저하는 아합 →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의 신탁

→ 미카야의 신탁(거짓을 말하는 하느님의 영) → 아합의 전사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황홀경을 통해 신탁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약신앙과 계약 전승에 충실함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해 하느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전형(정권에 반대)

예언 전승

티스베 사람 엘리야(1열왕17-19장; 21장)

70인역(LXX)은 17-19장 뒤에 21장을 놓고 있다.(하나의 전승 사화로 이해)

아합왕 시절 있었던 사화에 대한 예언전승-독립된 전승단위로 존재하다가
오므리 왕조 아합왕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배치된 것으로 이해

신명기계 작가의 특징적인 언어를 찾아볼 수 없고, 가르멜 산에
제단을 쌓아도 비난이 없다. 베텔의 제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에 대한
→ 어떤 선포가 없어도 질책 받지 않는다. 독립된 전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또한 예언자에 대한 특수한 역사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언 전승

큰 이야기의 줄기

가뭄과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17장)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18장)

이제벨을 피해 도피 중 호렙산으로 인도 받고 하느님을 만남(19장)

나봇의 포도밭(21장)

정확성이나 사실성의 결여

예언전승의 역사는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체험된 역사를 전하려는 의도.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준 거룩함을 내포한 두려움을 기록하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문화적 위기에서 야훼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제벨에 대항하는 엘리야

예언 전승

오므리와 아합이 펼쳤던 종교적 정책은 야훼 신앙이 거부가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의 관용이었던 것으로 판단

이제벨의 극단적인 종교적 폭정에 대해 예언자 엘리야에 대한 사화가 기록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 풍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 혼합종교주의에 대한 반향이며, 옳은 길로 선택하라는 초대

예언 전승

이 전승은 유일신관으로서의 야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체험 가운데 만난 야훼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섬김을 요구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는 전승사화

→ 물을 기름이 나오는 온천에서 길러온 가솔린이라는 설명, 내리치는
불을 비가 오기 전 번개가 들이치는 현상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지만...

예언전승의 역사해석에 주의

카르멜산의 승리 후 바알 예언자들이 숙청되고, 온 백성이 야훼 하느님을
부르짖었다고 기술하며, 가뭄이 끝난 사화를 보도하지만, 이제벨의 암수에
엘리야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신세

예언 전승

카르멜 산에서 이즈르엘로, 이제벨을 피해 브에르 세바로, 또 광야로
싸리 나무에 기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며, 낙담과 피로에 지친 예언자

→ 불신앙에 가득찬 인간의 탐욕이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또 하느님의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줌

호렙산에 이르러 “얼굴을 가린 채” 돌보시는 하느님을 대면하는 엘리야

→ 강한 바람, 지진, 거센 불이 지나간 후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세 가지 임무

경외로운 침묵

1.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워라
2.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3.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예언 전승

이스라엘의 예언운동은 신앙의 원천인 시나이로 돌아가는 순례

예언자들은 발전하는 문화에 따라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 신학을 펼치는 인물들이 아니라, 야훼께서 요구하시는 계약신앙에
기반을 두고 충실함과 섬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선포자들

모세 전승이 새로운 생명력과 의미를 가지고 현재에 표현되며,
계약전승으로 다시금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들이
예언자이며, 이러한 예언자들의 전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의 계약과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언 전승

나봇의 포도밭

땅에 대한 이해와 왕권에 대한 개념이해의 차이

임금에게 포도밭을 내어줄 수 없는 이유는 나봇이 처분할 수 있는
→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유재산'이 아니라 가문과 일족에 속해 있는
거룩한 유산으로서 물려줘야 할 부족의 재산.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1열왕21,4)

땅의 소유주는 야훼 하느님.

부족과 일족들의 소유인 땅을 부족 연합체의 수장인 임금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

예언 전승

임금에 대한 엘리야의 신탁과 아합의 회개

나봇의 포도밭 사건은 예언자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선포의 예시

예언자들은 모세 전승을 요구한 윤리의 옹호자들.

야훼께서는 누구나 당신 앞에서 동등한 계약 공동체를 만드셨고,
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야훼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공동체의 정의가 권력자에 의해 짓 밟힐 때, 약하고 힘 없는 자를
옹호하고 계약공동체 내의 질서와 가족적인 연대성을 회복

➡ 바알 종교의 귀족 정치에 따른 권력 유지에 반대

예언 전승

사밧의 아들 엘리사 (1열왕2-9장; 13,14-21)

엘리아와는 사뭇 다른 설화 유형

경이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민간 전승

➡ 인간적인 고뇌, 예언자의 숙명, 계약 전승의 해석 등과는 동떨어짐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 일, 과부의 기름병을 채움, 물을 피로 만들어 모압군을 속임, 수넴 여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고 죽은 아들을 되살림, 물에 빠뜨린 도끼를 떠오르게 만듦, 나아만의 병을 고쳐줌 등

➡ 이야기 배치의 목적과 의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엘리사 전승군은 예언자에 대한 특별한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요람(여호람), 여호사밧의 시대와 민간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 안에 예언자들의 활동을 살필 수 있도록 해준다.